

다시 부는 '문고본' 열풍

작은 책 큰 재미



다양한 디자인에 소설·인문학까지 확대 ... 출판 불황 타개 교본으로

“열다섯 살/ 하면 금세 떠오르는 삼중당 문고/ 150원 했던 삼중당 문고/ 수업시간에 선생님 몰래, 두터운 교과서 사이에 끼워 읽었던 삼중당 문고/ 특히 수험시간마다 꺼내 읽은 아슬한 삼중당 문고/ 위장병에 걸려 1년간 휴학할 때 암포젤 엠을 먹으며 읽은 삼중당 문고/ 개미가 사과결절에 들러붙듯 천천히 훑아먹은 삼중당 문고”(장정일의 '삼중당 문고'에서)

이사를 할 때면 많은 물건을 정리하면서 차마 버리지 못하는 물건이 있기 마련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래된 책이다. 그 오래된 책 가운데 문고본인 경우가 많다. 어떤 이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지난 시절의 추억이 서린 문고본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이삿짐 속에 챙겨가기도 한다.

이렇듯 누구나 문고본에 대한 추억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 영상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읽기 문화가 보편적이었고, 그 일정부분을 문고본이 담당했다. 기자에게도 문고본은 확장시절 독서의 근간이 되기도 했다.

특히 범우사의 문고본 가운데 법정기념

의 '무소유'는 2010년까지 300만부가 판매될 만큼 인기를 끌었다. 문고본의 황금기는 1970년대로 당시에는 '삼중당문고', '을유문고', '서문문고' 등이 문고 중수 200종을 넘어이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출판계의 문고본 기획 출간이 독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교보문고는 “1, 2월 문고본 판매량이 총 4만8403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7825권보다 2.7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 기간 판매량이 2015년 2만1130권에 비해 15%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로 읽히는 대목이다.

문고본은 휴대성이나 볼륨 측면에서 독자층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보편적인 형태의 책이다. 사전적 의미의 문고(文庫)는 “작은 크기로 값이 싸게 만들어 널리 보급되도록 펴낸 책”을 일컫는다. 대략 가로 110mm, 세로 145mm의 판형이 해당된다. 단행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디자인 또한 간결하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단행본이 고급화되면서 문고본은 잠시 변방으로 밀려났었다.

작금의 문고본은 과거와는 차별화된 양식으로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책의 판형,

저렴한 가격 등은 예전의 양상과 유사하지만 다양한 디자인, 출간 분야가 기존의 문학 위주에서 인문학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다르다. 불황으로 출판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기대 이익을 줄이는 대신 위험 부담을 낮추자는 의도에도 관련이 있다.

현재 문고본 시장을 견인하는 곳으로 민음사의 '손살문고', 마음산책의 '마음산문고' 유유의 '땅콩문고' 등을 꼽을 수 있다. '손살문고'는 토마스만의 '키 작은 프리데만 씨', 버지니아 울프의 에세이 '자기만의 방' 등 세계 문학전집을 바탕으로 선보였다.

이정도 '기획회의' 편집위원은 '기획회의'(435호)에서 “손살문고는 다른 문고본들과는 달리 컬러 색상 별색 인쇄를 시도하고 단가를 낮추기 위해 삭제했던 책날개 같은 디자인 요소를 되살렸다”고 말했다. 또한 “마음산문고는 이미 큰 판형으로 출간된 요네하라 마리의 책 다섯 권을 문고본으로 다시 냈다. 홍보 없이 입소문만으로 사흘만에 600세트 한정판이 매진됐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이어 “유유의 땅콩문고는 서평 쓰는 법, 책 읽는 법, 박물관 보는 법 같은 매뉴얼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의 문고본의 부활은 출판사가 독자들을 찾아가는 전략과 관련이 있다. 스마트폰 시대 책은 독자 스스로를 드러내는 기호이자 욕망의 산물이다. 출판사들이 이미지와 디자인에 신경을 쓰는 것은 그때문이다.

문고본 생산 양식의 다변화, 소설 매체 외의 융합 필요성도 요구된다. 백원근 한국출판학회 이사는 '기획회의'(435호)에서 이렇게 말한다. “양질의 콘텐츠를 박리다매로, 고급독자를 위한 프리미엄 콘텐츠는 고가종 종이책과 디지털로 변주하여 다양하게 공급하는 산업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문고본 출판의 활성화는 책의 저가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중고책 시장과 불법복제의 확산, 도서관에서의 무상 대출과 대어 시장 등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방책이다. 이제 문고본 출판, 오디오북 출판, 주문형 인쇄 출판(POD), 전자책 출판 등 2차 출판이 활성화된 선진국들의 오랜 경험을 출판 불황 타개의 살아 있는 교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다시 찾아온 '작은책의 시대'가 도서 시장에 어느 정도 새바람을 일으킬지 기대된다. 독자들은 책을 통해 각기 다른 독서의 기쁨과 소유의 만족을 누리길 바란다.

“문고본 출판의 활성화는 책의 저가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중고책 시장과 불법복제의 확산, 도서관에서의 무상 대출과 대어 시장 등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방책이다. 이제 문고본 출판, 오디오북 출판, 주문형 인쇄 출판(POD), 전자책 출판 등 2차 출판이 활성화된 선진국들의 오랜 경험을 출판 불황 타개의 살아 있는 교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다시 찾아온 '작은책의 시대'가 도서 시장에 어느 정도 새바람을 일으킬지 기대된다. 독자들은 책을 통해 각기 다른 독서의 기쁨과 소유의 만족을 누리길 바란다.

광주시립예술단체 수장 새인물 찾는다

시립발레단장 청빙제
창극단 감독 연임 안 돼
오페라단은 하반기로 연기

광주시립예술단체 수장들이 잇따라 교체된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2월말부터 광주시립발레단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창극단장도 조만간 임기가 끝나에 따라 단체를 이끌 예술감독을 찾고있다.

당초 상반기 창단 예정이었던 오페라단은 하반기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예술감독 선임도 연기됐다.

발레단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공모제 대신 청빙제를 통해 신입 예술감독을 뽑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중이다. 청빙위원회는 모두 6명으로 구성되며 현재 발레단 측 청빙위원 3명이 선정됐으며 광주시 측에서도 청빙위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청빙제를 통해 지난해 김홍재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가 위촉된 선례가 있다.

문예회관은 발레단 내부 파벌 문제 등 체질을 개선하고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외국인을 포함한 유능한 감독 영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예술감독의 연봉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실력 있는 인사 모시기에 나설 계획이다. 지금까지 광주시

립발레단 예술감독은 모두 지역에서 활동하는 발레인들이 맡아왔다. 회관 측은 “청빙 제도의 장점을 잘 활용해 감독 영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좋은 감독을 모시기 위해 선임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극단에서 이름을 바꾼 광주시립창극단도 새로운 예술감독을 선정한다.

오는 23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영옥 현 예술감독이 재위촉에 실패하면서 새로운 수장을 모색한다. 문예회관은 창극단의 경우 공모제와 청빙제의 장단점을 비교해 선임 방법을 정할 계획이다. 신입 감독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현재 부예술감독, 지도위원 등이 모두 공식인 관계로 단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오페라단 창단과 관련된 조례는 통과됐지만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오는 7월에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예술감독을 포함, 5명 안팎으로 인건비 3억 5000만원과 제작비 등 8억원을 요청했던 회관측은 예산을 조금 줄여 추경을 올릴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25일 '매직컬 신데렐라' 공연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이 봄을 맞아 마술과 뮤지컬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어린이공연 '매직컬 신데렐라'를 25일 오후 4시 교육관 대강당에서 공연한다.

'매직컬(마술 Magic과 뮤지컬 Musical의 합성어) 신데렐라'는 어린이들에게 익숙한 명작동화 '신데렐라'를 춤과 노래, 마술로 새롭게 각색한 가족 뮤지컬이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적인 내용과 함께 마음이 존재하는 환상적인 동화 속 세계를 마술을 통해 표현하는 점이 눈길을 끈다. 신데렐라가 누더기옷에서 화려한 드레스로 순식간에 의상을 바꾸 입거나 마술로 사탕을 나눠 주는 등 각종 연출로 인기를 끌고 있다. 무료 관람이며 6세 이상부터 입장 가능하다. 22일부터 24일까지 박물관 홈페이지(gwangju.museum.go.kr)를 통해 사전예약제(288명)로 관람 신청을 받는다.

한편 오후 1시부터는 주말가족영화로 애니메이션 '매직 브러시'(80분 분량)를 상영한다. 문의 062-570-702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한편 오후 1시부터는 주말가족영화로 애니메이션 '매직 브러시'(80분 분량)를 상영한다. 문의 062-570-702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진도 씻김굿의 정수를 만난다

23일 국악전수관, 목요일린국악한마당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진도 씻김굿' <사진>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 서구는 제525회 목요일린국악한마당으로 '진도씻김굿 보존회' 초청 공연을 갖는다. 23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진도씻김굿은 망자의 넋을 씻겨 그 넋이 극락 왕생 하도록 하는 천도 의례로 지난 1980년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 72호로 지정됐다. 씻김굿의 전반부인 조왕굿, 안당, 초가

망성, 손넙굿, 제석굿은 산 사람들의 복락 축원을 위함이고 고평이, 씻김, 낚을리기, 약풀이, 희설, 길닦음, 종천 등의 후반부는 죽은 자를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진도씻김굿의 음악은 우리 민속음악을 대표한다. 밤을 세워 계속되는 씻김굿은 길닦음 대목에서 그 절정을 이루며 끊어질 듯 애절하게 이어지는 곡은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슬픔을 안긴다. 진도씻김굿보



존회는 원형보존과 전승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열린 세계민속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또 유럽 7개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 초청 공연을 진행했다. 전석 초대.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불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불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불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가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진평읍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